



- 2. 버릇이 되어 익숙해지다.  
일이 손에 배다 / 욕이 입에 배다 / 언제부터 이런 게으름이 몸에 배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 3. 냄새가 스며들어 오래도록 남아 있다.  
담배 냄새가 옷에 배었다. / 아이 체육복에 땀 냄새가 났다. / 갓난아이 몸에는 항상 젖내가 배어 있다.
- 4. 느낌, 생각 따위가 깊이 느껴지거나 오래 남아 있다.  
농악에는 우리 민족의 정서가 배어 있다. / 이 책은 아이에 대한 주부들의 고민과 애정이 뻗어 있다.  
곱게 자라기만 했던 그녀가 그럭저럭 장사꾼 티가 배어 가기 시작한다.

**3배다(형용사)**

- 1. 물건의 사이가 비좁거나 촘촘하다.  
그물코가 배다 / 모를 배게 심다 / 물건이 창고에 배게 들어찼다.
- 2. 생각이나 안목이 매우 좁다.  
그는 속이 너무 배서 큰 인물은 못 되겠다.

**문4. 밑줄 친 단어 중 명사를 모두 고른 것은?**

- 십 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남으로써 갈등이 다소 해결되었다.
- 가능한 한 깨끗하게 청소하여라.
- 그녀는 옷을 뽀 말이 없었다.
- 나를 보기 위해 왔니?

2014 문제풀이  
유사문제 p.22-58번  
2014 원샷 특강  
파생명사와 용언의 명사형  
서브노트 p.19

- ① 만남, 한, 뽀
- ② 한, 뽀
- ③ 한, 뽀, 보기
- ④ 만남, 보기

[정답] ②

[정답해설]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있는 ‘한’과 ‘뽀’은 모두 의존명사임

[오답해설] 목적어 ‘친구를’과 호응하는 만남도, 목적어 ‘나를’과 호응하는 ‘보기’도 모두 동사임(서술성이 있음)

**문5.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술에 해당하는 ‘아트(art)’는 ‘조립하다’, ‘고안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의 ‘아르스(ars)’에서 비롯되었고, 예술을 의미하는 독일어 ‘쿤스트(Kunst)’는 ‘알고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퀸넨(können)’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의미 모두 일정한 목적을 가진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숙련된 기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 용어는 예술뿐만 아니라 수공이나 기타 실용적인 기술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쓰이는 예술의 개념은 18세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예술을 일반적인 기술과 구별하기 위하여 특별히 ‘미적 기술(영어: fine arts, 프랑스어: beaux-arts)’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생활에 유용한 것을 만들기 위한 실용적인 기술과 구별되는 좁은 의미의 예술은 조형 예술에 국한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조형 예술 이외의 음악, 문예, 연극, 무용 등을 포함한 미적 가치의 실현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기술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 ① ‘예술’과 ‘기술’의 차이
- ② ‘예술’의 변천과 그 원인
- ③ ‘예술’의 속성과 종류
- ④ ‘예술’의 어원과 그 의미의 변화

[정답] ④

[정답해설] 1문단은 어원을 통해 본 예술의 의미, 2문단은 18세기에 이르러 예술은 미적인 의미로 한정됨(변화함)

- [오답해설] ① 2문단에서 ‘예술’과 ‘기술’을 구별하기 위해 다른 표현을 사용했다고만 언급  
 ② ‘예술’의 의미가 변천(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되었으나 원인은 언급되어 있지 않음  
 ③ ‘예술’의 속성과 종류는 언급되어 있지 않음

문6. 형태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 ① 남겨진 적도 물리쳤겠네.
- ② 너를 위해서 맘을 흘렸어.
- ③ 흠쳐 갔을 수도 있겠군요.
- ④ 단팔죽이라도 가져와야지.

[정답] ①

[정답해설] 남+기+어+지+ㄴ+적+도+물리+치+었+겠+네 (12)  
사동접미사                      관형사형어미                      접미사(강조)

- [오답해설] ② 너+를+위+하+여+서+맘+을+흘리+었+어 (10)  
어근                      접미사                      어미  
 ③ 흠+치+어+가+았+을+수+도+있+겠+군+요(11)  
어간                      어간                      과거시제선어말어미                      종결어미                      보조사  
 ④ 달+ㄴ+팔+죽+이+라+도+가+지+어+오+아+야+지(9)  
어간                      관형사형어미                      보조사                      종결어미

2014 문제풀이  
 형태소의 개수(2013 기출)  
 동일문제 p.17-41번  
 2014 원샷 특강  
 형태소 개수 세기

문7.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가) 상품 생산자, 즉 판매자는 화폐를 얻기 위해 자신의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다. 하지만 생산자가 만들어 낸 상품이 시장에 들어서서 다른 상품이나 화폐와 관계를 맺게 되면, 이제 그 상품은 주인에게 복종하기를 멈추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나) 이처럼 상품이나 시장 법칙은 인간에 의해 산출된 것이지만, 이제 거꾸로 상품이나 시장 법칙이 인간을 지배하게 된다. 이때 인간 및 인간들 간의 관계가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년에 불과하다. 책을 쓰고 읽는 기능은 생존에 필요한 다른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뇌 건축물의 부수적 파생 효과 가운데 하나이다. 말하자면 그 능력은 덤으로 얻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덤’이 참으로 중요하다. 책이 없어도 인간은 기억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표현할 수 있기는 하나 책과 책 읽기는 인간이 이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데 중대한 차이를 낳기 때문이다. 또한 책을 읽는 문화와 책을 읽지 않는 문화는 기억, 사유, 상상, 표현의 층위에서 상당한 질적 차이를 가진 사회적 주체들을 생산한다. 그렇기는 해도 모든 사람이 맹목적인 책 예찬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을 더욱 인간적이게 하는 소중한 능력들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책은 결코 희생할 수 없는 매체라는 사실이다. 그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드는 비용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책 읽기는 결코 손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책 읽기에는 상당량의 정신 에너지와 훈련이 요구되며, 독서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습관 또한 요구된다.

- ① 책 읽기는 별다른 훈련이나 노력 없이도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일이다.
- ② 책을 쓰고 읽는 기능은 인간 뇌의 본래적 기능은 아니다.
- ③ 책과 책 읽기는 인간의 기억, 사유, 상상 등과 관련된 능력을 키우는 데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 ④ 독서 문화는 특정 층위에서 사회적 주체들의 질적 차이를 유발한다.

[정답] ①

[정답해설] 마지막 문장에서 “책 읽기에는 상당량의 정신 에너지와 훈련이 요구”라는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

**문10. 다음 글의 중심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할 때 당신은 마음에게 흠어지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집중과는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이 분열되는 상황에 처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도록,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히도록, 문제들을 안고 킁킁거리도록, 강박이나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때가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읽으면서 동시에 먹을 때 마음의 일부는 읽는 데 가 있고, 일부는 먹는 데 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어느 활동에서도 최상의 것을 얻지 못합니다. 다음과 같은 부처의 가르침을 명심하세요. ‘건고 있을 때는 걸어라.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어라. 갈팡질팡하지 마라.’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당신의 온전한 주의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지 부분적인 주의를 받을 가치 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할 가치가 있는지 자문하세요. 어떤 활동이 사소한 보이더라도, 당신은 마음을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 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소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하는 습관을 기르라.
- ②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라.
- ③ 자신이 하는 일에 전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라.
- ④ 과거나 미래가 주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라.

[정답] ③

[정답해설] 어떤 활동에서 최상의 것을 얻으려면 집중(=온전한 주의)이 필요하다는 글



- [오답해설] ① 개발(開發): 1) 토지나 천연자원 따위를 유용하게 만들. 2) 지식이나 재능 따위를 발달하게 함.  
 3) 산업이나 경제 따위를 발전하게 함. 4)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내어놓다.  
 ② 답지(逌至): 1) 한군데로 몰려들거나 몰려옴. 2) 방송국에 성금이 답지하다.  
 3) 세력가의 집에 선물이 답지하다. 4) 모금함에 온정의 물결이 답지하다.  
 ④ 채근(採根): 1) 식물의 뿌리를 캐냄. 2) 어떤 일의 내용, 원인, 근원 따위를 캐어 알아냄.  
 3) 어떻게 행동하기를 따지어 독촉함. 4) 남에게 받을 것을 달라고 독촉함.

문14.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는 대체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를 서양식(西洋式)으로 꾸미고 있다. “목은 잘라도 머리털은 못 자른다.”라고 하던 구한말(舊韓末)의 비분강개(悲憤慷慨)를 잊은 지 오래다. 외양(外樣)뿐 아니라, 우리가 신봉(信奉)하는 종교(宗教), 우리가 따르는 사상(思想), 우리가 즐기는 예술(藝術), 이 모든 것이 대체로 서양적(西洋的)인 것이다.

우리가 연구하는 학문(學問) 또한 예외가 아니다. 피와 뼈와 살을 조상(祖上)에게서 물려받았을 뿐, 문화(文化)라고 일컬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서양(西洋)에서 받아들인 것들인 듯싶다. 이러한 현실(現實)을 앞에 놓고서 민족 문화(民族文化)의 전통(傳統)을 찾고 이를 계승(繼承)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편협(偏狹)한 배타주의(排他主義)나 국수주의(國粹主義)로 오인(誤認)되기에 알맞은 이야기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민족 문화의 전통을 말하는 것이 반드시 보수적(保守的)이라는 멍에를 메어야만 하는 것일까? 이 문제(問題)에 대한 올바른 해답(解答)을 얻기 위해서는, 전통이란 어떤 것이며, 또 ( )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① 전통은 서구 문화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 ② 전통은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가
- ③ 전통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인가
- ④ 전통은 서구 문화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정답] ②

[정답해설] 앞 문단에서 거의 모든 것이 서양적인 현실에서 1)민족 문화의 전통을 찾고 2)계승하고자 한다는 것은 오인을 받게 될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은 1)전통이란 어떤 것이며 또 2)전통은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문15.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옳은 것은?

- ① 어제 선생님을 봣습니다.
- ② 오늘따라 피아노가 잘 안 쳐져요.
- ③ 삼촌이 그러는데요. 민희가 무척 예뻐졌대요.
- ④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두 아이는 쌍둥이예요.

[정답] ②

[정답해설] 치+어지(통사적 피동)+어(어미)+요(보조사) = 쳐져요

[오답해설] ① 뵈십니다 → 뵈십니다(뵈+어 → 뵈)

- ③ 데(경험한 지난 일을 돌이켜 말할 때 씀, 회상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 데('다고 해'의 준말.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청자에게 간접적으로 전달)
- ④ 쌍둥이이예요 → 쌍둥이예요

1. '이에요/이어요'는 명사와 결합하고 용언의 어간에 직접 결합할 때는 서술격 조사의 어간 '이-' 없이 '-예요/-어요'가 결합한다.  
 2. 받침이 있는 명사에는 줄지 않고 '이에요/이어요'만 사용하고 받침이 없는 명사에는 '이에요/이어요/예요/여요'가 가능하다.  
 3. 인명 뒤에는 준 형태만 사용한다.(받침이 있는 인명 뒤에는 접사 '-이'를 붙여 받침 없는 인명처럼 다룬다)

2014 화릉점정  
 이에요/이어요 p.30-7  
 2014 현대문법  
 뵈었다-뵈었다 p.119

**문16. 다음 시조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와 가장 가까운 것은?**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 | 로다.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석양(夕陽)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겨워 흐노라.

기본반 한자테스트 'ㄱ'  
 6번 문제와 해설  
 맥수지탄, 만시지탄, 망양지탄  
 생사고락 비문학+어휘  
 한자테스트 391-520  
 3번 비육지탄

- ① 서리지탄(黍離之歎)
- ② 만시지탄(晚時之歎)
- ③ 망양지탄(亡羊之歎)
- ④ 비육지탄(髒肉之歎)

[정답] ①

[정답해설] 화자는 폐허가 되어 가을 풀만 가득한 고려 왕조의 궁궐 터를 보며 눈물겨워 하고 있으므로 나라가 멸망한 뒤에 하는 탄식에 해당하는 맥수지탄(麥秀之嘆)이나 서리지탄(黍離之歎)이 적절하다.

[오답해설] ② 만시지탄(晚時之歎): '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친 것이 원통해서 탄식함'을 이르는 말

- ③ 망양지탄(亡羊之歎):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어 진리를 찾기 어려움', '방침(方針)이 많아 할 바를 모르게 됨'
- ④ 비육지탄(髒肉之歎): '넓적다리에 살이 붙음을 탄식한다'라는 뜻으로 기회를 얻지 못함을 탄식하는 것

**문17. 어법에 맞게 고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선생님과 함께 생활했던 시간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한 지 반 년이 지났습니다. 전 아직도 선생님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운동도, 도시락도 먹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종례 시간마다 해 주셨던 말씀은 제 인생에서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고3 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말은 당시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 온 이후 취미를 갖게 되었는데, ㉢기악부 동아리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공부에 쫓겨 엄두도 못 냈었는데 지금은 여유롭게 음악에 몰두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조만간 꼭 찾아뵙게요. ㉠항상 건강 조심하십시오.

- ① ㉠: ‘운동도 하고, 도시락도 먹던’으로 바꾸어 필요한 성분을 모두 갖춘다.
- ② ㉡: ‘희망을 잃지 않으셨다는 말씀은’으로 바꾸어 높임 표현을 바르게 한다.
- ③ ㉢: ‘그것은 기악부 동아리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일입니다.’로 바꾸어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을 이루도록 한다.
- ④ ㉣: ‘조심하다’는 명령형으로 쓰일 수 없으므로 해요체 ‘조심하세요’를 사용한다.

[정답] ④

[정답해설] 먼저 ‘조심하다’는 동사라서 명령형으로 쓰일 수 있다. 또한 해요체 ‘조심하세요’도 명령문이다

문18. 다음 글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관용구는 어떤 표현이 습관적으로 굳어져 사용됨으로써 원래의 뜻을 잃어 버린 언어 표현을 의미한다. ㉡ ‘내 코가 석 자’, ‘배가 남산만 하다’라는 말은 코의 길이나 배의 크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 즉 이 표현들을 이루고 있는 단어들의 표면적인 뜻만 가지고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 이러한 관용어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잘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① ㉠은 정의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단락의 완결성을 해치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 ② ㉡에 제시된 두 예는 원래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다른 예로 바꾸어야 한다.
- ③ ㉢은 앞 문장과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워 긴밀성을 해친다.
- ④ ㉣은 전체 제시문의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단락의 통일성을 해친다.

[정답] ④

[정답해설] 주제는 ‘관용구의 의미’인데 전통 문화와 연계하는 것은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다.

문 19. 밑줄 친 부분이 표준 발음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색연필[생년필] 사러 문방구에 갔다 올게요.
- ② 불별더위[불별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 ③ 너도 그렇게 차려입으니 웃맷시[온맷씨]가 난다.
- ④ 서점 가는 길에 식용유[시공뉴]도 좀 사 오너라.

서브노트 p.35 웃맷시, p.37 식용유  
불별더위 강의중 언급 적중

[정답] ② [불별더위] → [불별떠위]

[정답해설] 받침 [ㅂ, ㄷ, ㄱ] 뒤에 오는 예사소리는 무조건 된소리로 발음한다.(된소리되기 현상)

문 20.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베이징이나 시안 등지에서 볼 수 있는 중국의 유적들은 왜 그리도 클까? 이들 유적들은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비인간적이라 할 만큼 권위적이다. 왜 그런가? 중국은 광대한 나라였다. 그러므로 그 넓은 나라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천자로 대표되는 정치적 권위가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이 넓은 나라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지방의 반란에 대비하고 중앙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지방 세력가들을 다스릴 수 있는 무자비한 권력이 절대로 필요하였다. 그래서 중국의 황제는 천자로 불리었으며, 그 권위에는 누구든지 절대 복종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므로 중국의 황제는 단순한 세속인이 아니라 일종의 신적인 존재이기도 하였다. 중국 황제의 절대 권위, 이것을 온 천하에 확실하게 보여 주지 않는다면 중국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것이며, 그러면 그 나라는 다시 분열된 여러 왕국으로 나뉘게 될 것이었다. 이런 이념으로 만들어진 중국의 정치적 유물들은 그 규모가 장대할 뿐 아니라 고도로 권위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광대한 나라는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권위를 강조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한 사실은 조선 시대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그러나 조선 시대의 왕들은 중국의 황제와 같은 권위를 ( ㉠ ) 할 수는 없었다. 두 나라의 사회 구조, 정치 이념, 자연 환경 등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그로 인해 조선의 왕들은 주변의 정치 세력에 대하여 훨씬 더 ( ㉡ ) 이어야만 하였다. 더욱이 중국은 황토로 이루어진 광대한 평원 위에 도시를 만들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높고 낮은 수많은 산으로 이루어진 지형을 이용하여 왕성을 건설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차이점들이 복합적으로 어울려 양국의 역사와 문화의 성격을 서로 다르게 만들었다. 큰 것이 선천적으로 잘나서도 아니며, 그렇다고 작은 것이 못나서도 아닌 것이다. 한중 양국은 각자의 ( ㉢ )에 따라 오랜 세월을 걸쳐 이처럼 서로 다른 문화를 발전시켜 온 것이다.

㉠                      ㉡                      ㉢

- ① 강조(強調), 위압적(威壓的), 전망(展望)
- ② 향유(享有), 정략적(政略的), 능력(能力)
- ③ 구축(構築), 타협적(妥協的), 필요(必要)
- ④ 행사(行使), 당파적(黨派的), 권고(勸告)

[정답] ③

[정답해설] ㉠에는 문맥상 ‘향유(享有)’는 올 수 없다. ㉡에는 ‘당파적(黨派的)’이 어울리지 않는다.

㉢에는 ‘전망(展望)’이 올 수 없다.

[총평]

1. 비문학의 강조(8문제)
2. 기출의 중요성(외래어 표기법, 이론 문법, 표준발음법)
3. 이론 문법의 심화 문제